강 령
聖潔 · 希望 · 自由

성결신문

중생 · 성결 · 신유 · 재림
성결신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지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1907년부터 이어온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성결가족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 신앙성장과 교단부흥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knews.org / 대표전화 : 070-7132-0091~5 SUNGKYUL NEWS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제641호

미주지역총회, 새 회기 출범… 총회장에 이윤수 목사 선출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헌장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
목사 2명 안수… 북미 복음화와 세계선교 사명 재확인



제24회 미주지역총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자'(사도행전 1장 8절)라는 주제로 미국 네바다주 펠로우쉽교회(담임 김태상 목사, 동문)에서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2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올해 24주년을 맞이하는 미주총회는 미국동부, 미국서남, 미국서부, 캐나다동부전도, 캐나다서부지방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에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중에서 장흥 비전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이경화 목사 내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로서 충성하신 조성수 선교사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성총회의 은혜를 나누었다.

총회 첫날인 10월 19일 오후 7시에 이윤수 목사(미주총회 부총회장)의 사회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고, 기도에 신장호 목사(미국서부지방회 지방회장), 성경봉독에 양승민 목사(캐나다동부 전도지방회장), 설교에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 헌금기도에 강양규 목사(미국동부지방회장), 미주총회 총무 임근영 목사의 광고와 내빈 소개로 예배가 진행됐다.

오명석 목사(미주총회 전 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식이 이어졌고, 김찬중 전도사(캐나다 서부지방회 소속), Ibonne Araceli Gutierrez Aparicio 전도사(멕시코 현지 사역자)의 목사안수식을 거행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두 사람의 축도로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2면에 계속

총회교육국, '2027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 개최

신년 목회 방향 모색… 변화하는 한국교회 대응 전략 제시

총회(총회장 이종만 목사) 교육국은 지난 11월 2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2027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목회 방향을 모색하고, 개교회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목회전략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교인 감소와 다음 세대 약화, 신앙생활의 개인화,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진단하고, 교회의 규모와 환경에 따른 지속 가능한 목회 방안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는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초빙되어 강의를 이어 나갔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지용근 대표는 '2027년 목회 트렌드'를 주제로 한국교회의 변화와 미래 목회 방향을 역설했다.

지 대표의 저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은 교회 출석과 신앙 정체성이 분리되는 크리스천 디커플링, AI를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프롬프트 크리스천, 직분보다 자율적인 신앙 참여를 선호하는 노 타이틀 성도 등 주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신앙생활의 개인화와 디지털 환경의 확산 속에서 대면예배와 공동체적 관계, 실생활에 적용되는 설교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일 교수는 강소 교회 로드맵을 주제로 소형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목회 방안을 다뤘다.

김 교수는 소형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목회 원리를 제시하고 교회의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예배와 설교, 제자훈련, 소그룹 사역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도 한 사람의 신앙 성장에 집중하는 '한 사람 목회'와 평신도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전도 전략을 강조했다.



목회현장 사례에 대한 공유의 시간도 이어졌다. 오후시간에 진행된 강의는 규암교회 장윤석 목사와 참좋은교회 박용철 목사가 나서서 실제 목회 현장의 경험과 사역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골

사랑과 감사의 노래를

11월을 맞는다. 달력에 남은 두 장이 유독 얇게 느껴진다. 걸음마다 비바람에 흩날린 낙엽이 밟히고,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겨울 냄새가 나는 만추(晩秋)의 계절이다. 해는 갈수록 짧아지고, 추수를 끝낸 들판은 긴 동면을 준비하고 있다. 잎사귀조차 떨군 감나무에는 까치밥이 몇 개 달려있지만, 까치조차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고 까치집도 빈 둥지이다. 쓸쓸함이 가득한 만추의 계절, 떠난 사람이 그립고 오래된 노랫말이 입가에 맴돈다.

11월에는 내려앉은 찬 공기처럼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이다. 햇빛 잘 드는 넓은 창가 따뜻한 찻집에라도 앉아 지난 시간 내 삶의 흔적을 펼쳐놓고 오롯이 내 삶의 둥지에 담긴 것을 헤아려 보는 때이다. 둥지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고, 비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듯 싶은데, 지난 발걸음이 반듯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 아쉬움과 미련이 많고 특히 열매 없는 빈 둥지인 것이 가슴을 때린다.

11월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 어디선가 서리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 피를 분 입술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낮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태주-11월)

이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사랑하는 일'이라는 시인의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 못다한 하나님 사랑, 그대 사랑을 말이다.

또 하나는 감사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와버린 그 세월을 이끄시고, 다시 올 계절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다. 사랑과 감사를 마음에 담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밀려온다. 역시 사랑, 감사는 메마른 우리 삶을 윤기 나게 하는 비료와 같다.

엊그제 식물원에서 보았던 붉은 동백꽃은 쓸쓸한 계절을 밝히는 하나님의 눈빛처럼 빛이 났다. 찬 바람 부는 겨울이 오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다.

11월에는 목소리 높여 사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淸水 ehc3s@hanmail.net